# 강진청자, 올핸 유럽서 '바람몰이'

## 4월 11일~10월 19일까지 9개국 순회전

## 국보급 청자 등 재현품 50여점 요출 시작

'천년 비색의 신비'를 간직한 전남 강진청자가 새해부터 세계화를 위한 바람몰이를 시작했다.

강진군은 4일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순회전에 출품될 청자작품 요출(窯出)을 연초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된 작품은 청자상감운학문매병(국보 68호), 청자칠보투각향로(국보 95호) 등 국보급 청자 재현품 50여점으로 앞으로 1~2차례 작업을 더한 뒤 유럽에 보내질 예정이다. 20여명의 도공들이 물레와 성형작업 등을 거쳐 옛 방식인 화목(火木)가마를 이용, 50여시간 본벌구이를 마쳤다.

유럽전은 오는 4월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네덜란드 호르큼시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로마,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와 리모주시, 포르투갈 리스본, 영국 런던,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 스톡홀름 등 9개국 10개도시를 순회한다.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 덴마크 등 3개국은 한국과 수교 50주년을 맞아 외교통상부의 특별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군은 설명했다.

강진청자의 유럽 투어는 2006년 4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UNESCO) 본부 강진청자전을 시작으로 2007년 일본, 지난해 미국전에 이은 것으로 세계적 위상을 확실히 정립하는 의미가 있다.

일선 지자체가 단일 주제를 갖고 전 세계를 돌며 국제 전시회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강진은 물론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유럽전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유럽전시회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시작품 제작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군은 유럽전에서 청자 이외에도 칠량옹기, 가야금과 대금, 사물놀이 등 전통 문화공연, 청자 성형 등 청자제작 과정 시연, 청자와 차의 만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곁들일 예정이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유럽전은 강진청자가 세계적 문화상품으로 확실한 위상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강진청자가 한국만이 아닌 세계인의 문화유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조형래 곡성군수

# "1읍면-1특화, 명품 농산물 육성"

"기축년에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친환경 가족도시, 자연 속의 가족마을 곡성'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4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산림 활용, 소득원 개발

조형래 곡성군수는 4일 "2009년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으로 어렵겠지만, 새해 아침 힘차게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의 기세로 난국을 극복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군수가 밝힌 4대 역점사업은 ▲소득창출을 위한 친환경 명품 농림산업 육성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 및 살맛나는 지역사회 건설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 복지서비스 실현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관광 진흥 등이다.

조 군수는 "소득창출을 위한 친환경 명품 농림사업 육성을 위해 흙살리기와 생물적 방제산업을 추진해 친환경 명품농업의 기반을 잡고 나서 1읍면 1특화품목정책으로 쌀, 멜론, 깻잎 등 각종 명품 농산물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농가에는 사료생산, 질병위생관리 등을 지원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운동도 추진하며 특히 군 면적의 72%가 산림인 점에 착안, 58억원을 투자해 산양삼과 표고버섯, 참옻나무 단지 조성 등을 통한 산림소득원 개발에도 나선다.

활기찬 지역경제, 살맛나는 지역사회 조성사업은 안정된 정주환경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곡성읍 5일시장 이전사업, 심청 상품권 30억원 이상 유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또 곡성읍 옛 중앙초교에 실내체육관과 인조 잔디구장, 주민복지 웰빙체험센터 개설, 옥과권 생활체육공원 조성, 곡성 다목적 운동장 신축 등을 비롯해 고달면 목동지구와 석곡면 목사동 지역 상수도사업 등도 추진된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인에게 생활지도사 파견, 노인일자리 마련, 장기요양기관과 경로식당 운영비, 경로당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책 마련, 마을 순회진료, 각종 여성단체 사회참여와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 등에 3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 군수는 "생태환경 보전과 문화관광 진흥사업은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지만 반드시 곡성의 자연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전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개발보다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확고한 환경관을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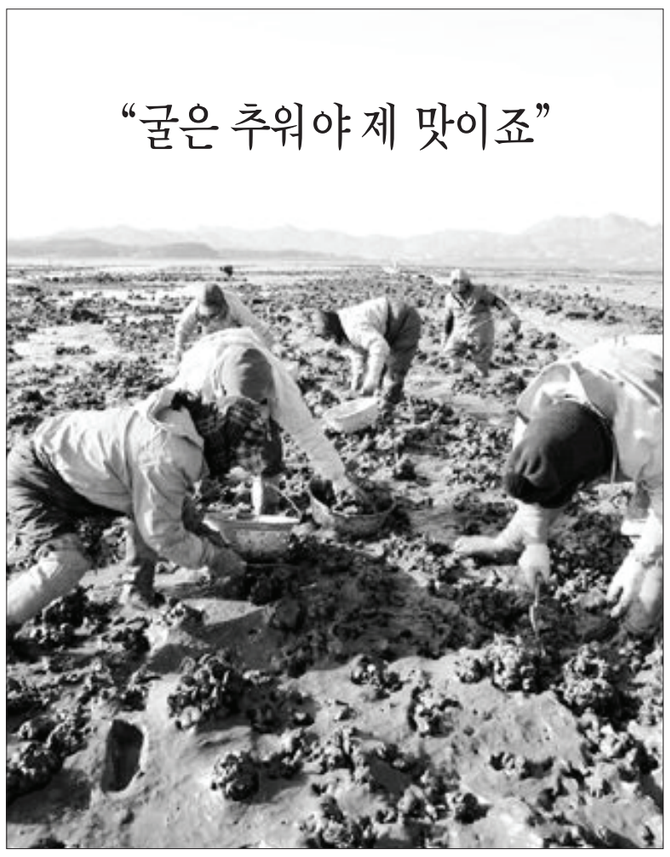
### 기차마을에 장미원 조성

생태환경 보전 시책으로는 지역내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관리 강화, 곡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추진되며 문화관광 진흥사업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섬진강 기차마을에 전국 최대 규모 장미원 조성, 지역 관광자원을 묶은 선순환 관광벨트조성 사업 등이다.

조 군수는 "거대한 경기불황의 파장은 우리 농촌지역에도 미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미래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굴은 추워야 제 맛이죠"



한겨울 추위 속에 강진군 칠량면 강진만 갯벌에서 석화(石花)를 따는 아낙네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줄에 매달아 양식을 하는 수하식 굴보다 작고 채취하기도 힘들지만 뛰어난 맛으로 양식보다 2배 가량 비싸다. 〈강진군제공〉

## "2010년 농림수산사업 희망자 신청 하세요"

전남도는 2010년에 지원할 농림수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희망자 신청접수를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사업은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 수산물 소비촉진 등 96개 자율사업으로 2010년에 사업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이달 말까지 도내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농수산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이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회의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접수기관에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등 심사를 벌여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 뒤, 오는 3월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

# '행복나주 이동 봉사단' 주민 향해 출발

## 20여기관·업체 50여명 月 2회 읍면동 순회 서비스

나주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나주시는 4일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나주 이동봉사단'이 매달 2차례씩 읍면동 순회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시 보건소와 위생과 등 시청 공무원을 주축으로 지역 의료기관, 전기안전공사, 가스협회, 가전업체 서비스 센터 등 20여개 기관·업체 관계자 50여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혈압체크 등 간단한 보건진료와 이·미용, 집수리, 빨래 등 가사지원, 전기와 가스, 수도, 가전제품 등의 수리와 수선 등 각종 민원을 도맡아 처리한다.

봉사단이 본격 활동에 나선 것은 지난해말 노안과 공산면 등 3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주민 950여명이 각종 서비스를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홀로 사는 칠순노인 등을 찾아 전기설치와 난방설비 등을 해주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도 작용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장성 201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장성군에 2011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의 제 9차 천연가스 수급계획 발표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확정돼 201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올 하반기부터 1단계로 2011년까지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성읍과 황룡면, 동화면, 삼계면 등 4개 읍면 35km의 구간에 기본 배관망을 비롯해 관리소와 차단소, 공급배관을 설치하게 된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20가구 이상 아파트와 기업체, 관광서 등과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에 우선 공급하고 북부권 등 기타 지역은 에너지 사용량 증가 추이에 따라 2단계로 공급할 계획이다. /장성=류종선기자 yjs52@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 21일까지 사업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는 오는 21일까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을 받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지난해 보다 12억원을 증액한 213억원을 지원해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청횟수를 4회(1·3·6·9월)로 늘렸다. 신청대상은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금융·공공기관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매입가격의 1%이내의 임대료를 내고 5년간 임대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우선매입권(환매권)이 부여된다.문의(062-958-2375) /송기동기자 song@